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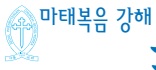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마 16:1-4)

A Wicked Generation looking for a Sign

(Matt. 16:1-4)

모든 일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1절).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나쁜 일을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ven though the result in everything is important, the motivation for starting a thing is much more important. In the text, there was a group of people who came to Jesus with a bad motive.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esus and tested him by asking him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v. 1).

The Pharisees and Sadducees usually didn't get along well, but they became one to test Jesus.

1.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한 마디로 귀족 계급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귀족 생활이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부류였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이면은 철저한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하고, 심지어 인간에게 영혼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며 물질주의자들입니다.

2.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마른 풀 같은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너무 많은 양식을 먹어서 영적 비만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종교에 열심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수백 가지의 규율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울무가 되는 지킬 수 없는 규율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자신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독한 우월주의자들이었고 지독한 비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는 한마음이 되어 함께 와서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기사와 이적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앞에 너무도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유일한 표적,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Sadducees

One of the very important groups is the Sadducees in order to separate Jewish people from themselves. In a word, the Sadducees' group is an aristocratic class. That's why they are secularists that make interpretation of God's meaning within limits in which it does not give a bad influence on their aristocratic life.

By thoroughly accepting the Greek culture and flattering the Roman government, they were such kinds of people who physically enjoyed only a good thing and lived their lives. Although they externally acted like a spiritual man, behind it they were thoroughly secularists. They do not believe a resurrection. They say that there are neither angels nor spirits in human beings. They are really realist and materialist.

2. The Pharisees

If the Sadducees spiritually are people like dried leaves, the Pharisees are like people that are seized with obesity of spirit, because they spiritually ate too much food. Especially, the Pharisees made hundreds of regulations to observe God's word because they are enthusiastic about religion. At first they started with a good motivation but, as a result, because they made many regulations that could be their trap and they could not observe for themselves, they condemned themselves and other people. They were an awful chauvinist and ideologist of criticism. But the Pharisees believed in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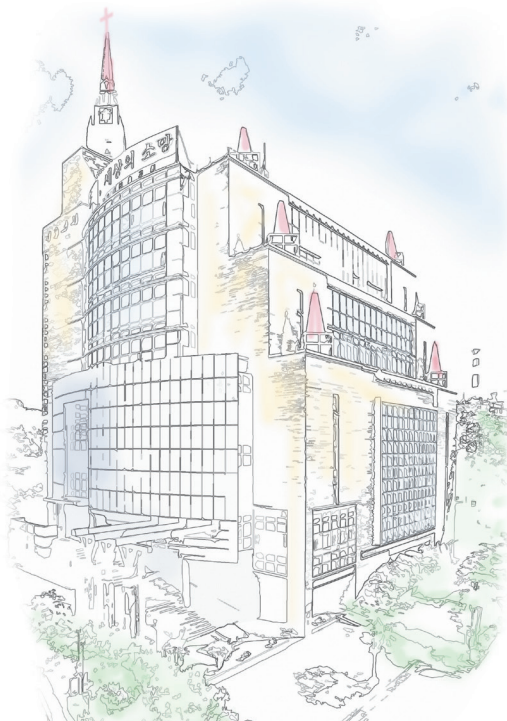
Like this, two kinds of people who did not get along with themselves, came together and asked Jesus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by testing him, finding fault

with him, and becoming one mind.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looks for a miraculous signs, but none will be given to them except the sign of Jonah” (v. 4). The sign of Jonah that Jesus mentioned means that Jesus would die and third day He would rise from the dead.

My beloved Christians,

What is the evidence of which we believe in a living God? Of course, we experienced the wonders and miracles of God who took care of our life a flowing stream, but, above all, nothing is a clearer sign than Jesus' event of cross, and resurrection which spread out clearly in front of us. By fully holding Jesus Christ's cross which is the unique sign, and the most beautiful and confident sig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beautiful people of faith and have victory every d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여, 북한 동포를 구원하소서 통곡기도대회

8월22일(금) 오후5시 서울교회 본당

한국 교회가 북한 동포의 구원과 이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는 기도가 8월22일(금) 오후5시 서울교회 본당에서 울려 퍼진다. 이번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는 북한 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이종운 원로목사)은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 동포 구원을 위한 '2014 통곡기도대회·통일광장기도회'를 8월 1일 대구 서현교회에서 시작으로 12일 부산 사직동교회, 22일 서울교회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종운 원로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형제들에 무관심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눈물 흘려야 한다"며 "북한 동포의 신음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라도 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통곡기도대회"라고 설명하며 "인권은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인간이 빼앗고 있으며, 탈북자는 난민이며, UN이 탈북난민수용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곡기도대회에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에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1)

(문 141) 예레미야7:22-23과 출애굽기20:24을 어떻게 조화시켜 읽을 수 있을까요?

(답) 예레미야7:22~23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한 것은 마치 모세의 때엔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원치 않으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곳에서 특히 출20:24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와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하시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레미야는 아마도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희생 제사법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야말로 근거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렘7:22-23은 출19:5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하셨습니다.

출12장에 있는 유월절 규례와 달리 제단도 희생 제물도 요구가 없으나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 24절에서 희생제물이 언급된 것입니다. 렘7장의 요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서 믿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22-23절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완전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복종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약속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의식이나 형식적 예배는 요구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끌어낼 때 처음부터 제물이나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없는 종교적 수단은 의미가 없으며 가증된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1:11-17과 암5:21-26도 이 같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2014 사랑의 바자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두가지 꼭 참여하기를 / 9월 25일(목)~26일(금), 서울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는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한두 가지 이상 참여하여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대한다.

1. 사랑의 온도계(모금함)

• '만원의 정성으로 사랑의 온도계를 뜨겁게'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되며 1, 2, 8층에 설치된 모금함에 기부하면 된다.

2. 헌 옷 및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모으기

• 옷장에 방치된 재활용 의류 3점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생활용품 1점 이상 기증한다. 교구명을 기재하여 104호실이나 교구 간사에게 접수한다.

3. 10% 사랑나눔

• 교회학교 학생들의 절제 생활을 통한 기부(나눔) 운동으로 한 달 용돈의 10%를 절약하여 9월 21일 주일에 사랑나눔 10% 운동 헌금 봉투에 담아 헌금하면 된다. 성숙한 크리스찬의 생활태도를 익히며 실천할 수 있다.

4. 1% 사랑나눔

• 교인사업체 및 외부기업 등에서 월매출액 또는 수입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9월21일 주일에 사랑나눔 10% 운동 헌금 봉투에 담아 헌금한다.

5. 신상품 기증

• 성도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품들을 기증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재고상품의 기증도 환영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릴 예정이다

6. 서비스 상품 이용권 기부

•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등 (예 : 한정식 식사권, 카페 이용권, 파마 이용권, 수학 수강권, 병원 검진권)

7. 자선바자음악회

• 음악에 재능을 가진 분들의 기부를 통해 자선바자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에 재능을 갖고 기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국이나 바자위원회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

관람티켓은 일반 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다라방법, 가족단위 참석은 물론 믿지 않는 주위의 지인들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기 원한다.

8. 사랑의 바자

•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되는 바자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라방 식구나 일가친지들과 함께 구매에 참여할 수도 있다.



힌두신보다 더 큰 신이 나타났습니다



이영숙 권사 (방글라데시 기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입니다.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원들 모두 건강하며 현재까지 예정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꼬람폴라 기독교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선교지인 하종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선도, 신호등도 없는 비포장 도로를 버스, 리샤, 트럭, 자전거 등이 서로 엉켜 질주하니 그 아슬아슬함에 곡예가 따로 없었습니다.



강을 걸어서 건너는 대원들

강을 건너고 수레에 짐을 싣고 질퍽거리는 길을 걸어 한 시간 넘게 걸어서 저녁 예배시간에 이르러서야 하종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미 수많은 아이들로 북적거렸으며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전기도 없는 오지에 처음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환한 불



의료선교

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니 마을의 대표자는 한국은 그들에게 빛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날은 이날은 주의 날일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벵갈어와 우리말이 어우러진 우렁찬 찬양소리는 고요한 시골마을의 정적을 깨고 온 사방으로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3년 전 우리교회가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자 이웃에 있는 120년 된 힌두사원이 일주일 만에 폭삭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힌두교도들로 둘러싸여 있는 하종족들은 이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차차 마을의 소문은 힌두신보다 더 큰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교인들이 담대해졌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모기장을 치고 옷은 땀과 비에 젖어 축축한 채 고단한 몸을 누였습니다.

이튿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물려드는 어린이와 마을 주민들로 의료, 약국, 이미용, 어린이, 지원팀들은 하루 종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점심도 주먹밥으로 급하게 먹고는 다시 원 위치로 복귀, 마치 전쟁터에 나간 용사 같이 전 대원들은 움직였습니다. 의료팀이 323번의 마지막 환자를 보았을 때 하늘 한 가운데 쌍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날 저녁은 마을 잔치가 벌



진료를 받으러 새벽부터 기다리는 이슬람여성들

여졌습니다. 온 교인들이 모여 닭을 잡아 이들의 전통요리인 푼가리를 만들어 우리와 믿지 않는 주민들을 풍성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이른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길을 전송해 줄 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 우리가 이미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다카로 돌아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10분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자신의 종족의 복음화에 전 삶을 바치는 그들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큰 자들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 다카의 빈민가와 호스텔을 돌면서 나머지 사역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미용선교

날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서울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로 밟시!

교회 주차장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우리 서울교회는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교회 주차장에도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희생자 헌신이 요구 되는 자기포기입니다. 교회 주차장부터 새로워지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예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다운 주차행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방문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대치동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주차문제를 우리 서울교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지난 3월 초순부터 범 교회차원의 B.M.W.-Bus&Metro(대중교통이용), Walking(걸어서 교회 오기)-캠페인을 주일예배에 한하여 진행중입니다.

BMW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 3월~4월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회 지하주차장만 보면 평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만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는 차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은마아파트 방향의 노상주차가 제한된 7월부터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복잡해지고 있

습니다. 우리교회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는 우리 서울교회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만 하는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로 분담한다면 주차로 인한 어려움은 없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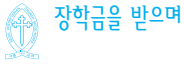
- BMW 캠페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BMW 캠페인은 연중, 주일예배에만 적용합니다.
 - 2) 장애 성도(B1 지정지역)와 새가족 차량(지상 1층)을 최우선으로 주차안내 합니다. (특히 B1 진입로 입구 주차지역(7대)과 엘리베이터 홀 입구는 장애성도 주차장 지역입니다.)
 - 3) 교회 인근 지역 거주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4) 항존직 직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5) 기타 차량은 강남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차량관리부



상단 : 회차가 불가능할 정도의 우리교회 B1 주차장 상황
하단 : 대부분 비어 있는 강남구민회관 B2 주차장 상황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으로



김성은 성도 (청년 1부)

장학생으로 선택 해주신 서울교회와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금을 제게 주신 것은 저의 뛰어난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니 더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교회에 21년을 모태신앙으로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는 누구의 강요 없이도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에 대한 봉사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의무적인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의무적인 봉사에서 주님에 대한 봉사로 바뀐 것은 중등부 첫 수련회에서 보았던 언니, 오빠들의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였지만 찬양이 하고 싶었고, 찬양하는 동안 제 마음속의 기쁨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등부 찬양팀 '찬씨' 안에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선생님과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며 믿을



을 키워나갔습니다.

주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16살 저는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택하였고,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확신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후의 제 삶은 좀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주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생이 된 후 세상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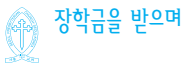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계기로 주신 이 장학금을 감사히 받으며, 주님께 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 되기 위해 학업의 보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주님의 크신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정 : 지난 주 2면 기사 중 장년부 부장을 진교남 집사에서 **이학주 집사**로 정정함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섬김의교회 여름수련회 (8. 18-19)에서 특강을 두차례 한다. 20일 (수)국민운동 기독교운동본부 부지회창립 위해 광주 교단협 고문단과 연석회의를 갖는다. 22일(금)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통곡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이갑진 장로(12교구) 8.19-24 대한 축구나눔재단 이사장으로 리오스 유소년 축구 경기 주관 및 후원차 출장
- 교역자 휴가: 서준권목사 8.19(화)-22(금)
대행 : 장재원 전도사, 정대는 전도사
임규현 목사 8.18(월)-23(토)
대행 : 서명철 목사
- 공연 : 15교구 신모란 집사 '오페라-나는 이중섭이다' 8.22일(금) 7:30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일식당봉사 :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8.17) 이삭선교회 도르가전도회(8.24)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광욱 집사 서영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주님



남유락 성도 (고등부)

우선 장학금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것은 멀리서 오는 것 밖에 없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혹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막상 장학생대상이 되고 나니 얼떨하고 저를 추천해 주신 부장선생님이 떠오르며 너무 감사 또 감사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장학금을 받게된 것임을 믿습니다. 장학생 대상이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였다는 말을 들으며 더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더욱 더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삶을 살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다

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부모님께 큰 기쁨을 가져다 드릴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핑계로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학업에 둔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장학예배를 통해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려운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안에서 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위해 노력하며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겠다는 마음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작고 큰 은혜 잊지 않으며 감사함 속에서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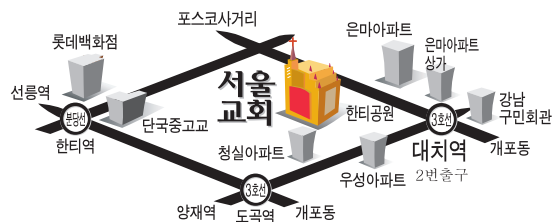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단기선교와 국내선교,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2. 8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있는 북한동포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3. 주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민회관의 지하 주차장을 적극 이용하고 B.M.W. 운동이 지속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새 벽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